

“확 바꾸겠다” 내홍 딛고 윤석열호 선대위 출항

빨간 목도리·손 잡고 ‘원팀’ 강조 젊음·변화 키워드로 꾸며 홍준표·유승민은 불참

“이제부터는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윤석열호(號) 선거대책위원회가 본격 출항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정권교체의 깃발 하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참석인원이 제한된 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출범식은 ‘젊음’과 ‘변화’를 키워드로 꾸며졌다. 무대 뒤 대형 전광판에는 붉은색 바탕에 ‘확’을 큰 글씨로 강조한 ‘윤석열이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흰색 셔츠를 받쳐 입은 회색 니트 차림에 감색 정장을 입은 윤 후보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무대로 나왔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나란히 서서 맞잡은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여주며 인사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 이 대표에게 빨간색 목도리를 돌려주며 원팀 의지를 다

졌다. 선대위 출범 직전 파열음을 낸 이 대표와는 부동켜안기도 했다. 윤 후보의 빨간 목도리는 무대 위에 있던 대학생이 돌려줬다.

선대위 관계자와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자리한 이날 출범식엔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검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향유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며 “상식을 증명하고 정의를 바로잡을 시간이다.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분배와 안전, 공정의 담론이 살아서 펄떡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나라도 민족도 파국·파산·파멸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출범 직전 ‘잡행’ 행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동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대선 승리를 기원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대위 내홍을 의식한 듯 “지난 며칠간 제가 초래한 혼란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표

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윤 후보와 우리를 의 순수한 노력 사이로 남을 짚아내리고 이간질해

본인의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3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민간이익 대통령령 10% 내 실정 고려 정하도록 합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3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용천 의원은 애초 민간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냈으나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토위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민간 이익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민간 참여자 이윤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토론이 오갔다.

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이윤율이 중요한데, 결국은 법안에 포괄해서 시행령에 맡기는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률로 정해서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

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민간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위 위원들은 ‘개발이익환수법 3법’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대장동 사태 몰라기”라며 상정을 반대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한 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심상정-안철수, 결선투표제 도입 공감대

“양당체제 경종 올려야”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6일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두 후보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서 만나 “이번 대선에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선

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뜻을 모으고 고 전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확진자 1만 명 이상, 중증 환자 2000명 이상 치료 가능한 병상과 의료진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또 “양당체제에 경종을 울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개발·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 부패에 연루된 후보가 등록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을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현실과 청년의 불안한 미래에 답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기득권 양당 후보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만든 진흙탕 선거에 함몰되지 않고 공적 연구개혁,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대책과 같은 미래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 ‘잠정 폐쇄’ 권리당원 게시판 실명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으로 이달 초 폐쇄한 권리당원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해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6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년 말까지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책임감 있는 실명 형태로 일종의 건전한 비판의 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을 정비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약 3주 동안 정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 재개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는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지금은 공론의 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 일종의 말의 배설구같이 돼 있다”며 “조금 더 책임성 있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목표하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를 각각 지지하는 당원 간 설전이 과열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선 기간 게시판을 일시 중단하거나 하루 한 번 글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치가 나온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아예 게시판을 잠정 폐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정진석 의원, 법 개정 추진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 추진된다.

6일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에는 같은 당 홍준표(홍성·예산), 김태흠(보령·서천) 의원도 함께한다.

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

상 마무리됐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설치되는 마당에 청와대가 의로운 섬처럼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 (보2천, 월200) 급매가 -> 4억 5천 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 (보1천, 월100) 급매가 -> 2억 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010-6670-9800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